

# 우리나라 고대짚신 재료의 수종

김경희\* · 박원규\*\* · 김요정 \*\*\*

\*국립청주박물관 보존과학실,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충북대학교 연료연구센터

## 1. 서론

초본류의 짚·풀로 만들어진 공예품들과 옛 선조들의 생활용품이 유적지에서 발굴되지만 목제품과는 달리 보통 수종이 동정되지 않고 있다. 유물인 만큼 경험과 사용했던 재료를 바탕으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손상도 가지 않으며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으로 수종을 동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시료로 현미경적 방법을 이용해서만 과학적인 동정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목재의 수종별 자료와 정보는 체계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에 반해 초본류의 데이터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므로 초본류의 수종을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초본류는 다른 재료와는 달리 약하며 손상이 많이 가있는 상태로 출토되어지므로 현미경적 관찰 또한 목재보다는 매우 어렵다. 옛 선조들이 짚과 풀을 이용한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자주 사용했던 재료들에 대한 현미경 조직에 대한 현생 표본자료를 정리해 놓으면 손쉽게 분석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현미경 조직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시료의 수종을 분석하면 시대별로 짚신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식생, 기후 그리고 옛 선조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前報(박원규 등, 2004년 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대회)에 보고된 부여 궁남지와 관북리 출토 짚신의 경우 재료가 모두 부들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현미경적 수종 감정이 중요하다. 짚신을 만드는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짚과 삼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부들을 가지고 짚신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고대 짚신의 수종을 동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생 초본류의 조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출토된 짚신의 재료를 분석함으로써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재료 및 방법

### (1) 재료

표 1. 조사대상 짚신시료

| NO | 유적명    | 시대    |           | 시료갯수 |
|----|--------|-------|-----------|------|
|    |        | 시대    | 시대        |      |
| 1  | 군산 내흥동 | 원삼국시대 | 기원전~AD300 | 2점   |
| 2  | 아산 갈매리 | 백제시대  | 3세기말~4세기초 | 44점  |
| 3  | 익산 왕궁리 |       | 6세기~7세기   | 29점  |
| 4  | 부여 궁남지 |       | 6세기~7세기   | 19점  |
| 5  | 부여 관북리 |       | 6세기~7세기   | 8점   |
|    |        |       |           |      |

### (2) 방법

- ① 짚신시료 외형을 우선 관찰하였다.
- ② 짚신시료를 해리하기 위해 시험관에 넣고 Schulz 용액에 담갔다.
- ③ 1-2주일간 방치한 다음 수세하여 사용하였다.
- ④ 오랜 기간 수침 상태로 있었으므로 일부는 바로 해리되어 사용하였고 해리가 덜 된 나머지 부분은 탕욕 상에서 10-30분간 가열하였다.
- ⑤ 슬라이드글라스에 시료를 올려놓고 글리세린을 떨어뜨린 다음 커버글라스를 덮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은 현미경에 부착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시료 수는 총 102점으로 5곳의 유적지 짚신시료 관찰한 결과 모두 부들로 동정되었다. 현생표본과 식별된 짚신의 표피를 관찰해보면 부들의 표피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들의 표피와 다른 식물과 비교해보면 왕골의 표피에서는 길쭉길쭉한 매끄러운 장세포와 그사이로 기공과 헤어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벼의 표피세포는 돌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공의 모양도 가운데 물결무늬 주름이 있으며 표피 장세포

의 세포벽이 매끄럽지가 않고 성곽모양으로 울퉁불퉁하다. 삼의 표피에서는 기공은 관찰할 수 없었으나 불규칙한 세포배열과 기다란 헤어와 작은 헤어들도 역시 불규칙적으로 많이 나있다. 이에 반해 부들의 표피세포는 장세포가 방형에 가까우며 테두리는 매끈하였고 기공이 다열을 지어 기공이 없는 장세포와 교호되며 줄무늬로 존재하는 점이 짚신의 표피세포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부들이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에 짚신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들은 수생식물로 연못가나 늪지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로 근대에는 짚신보다는 자리를 만드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Fig. 1. 현생 왕골표피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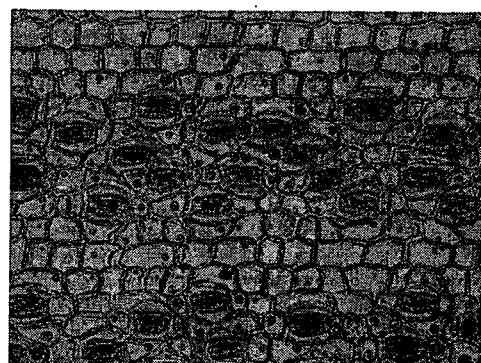


Fig. 2. 현생 부들 표피 (×400)



Fig. 3. 현생 삼 표피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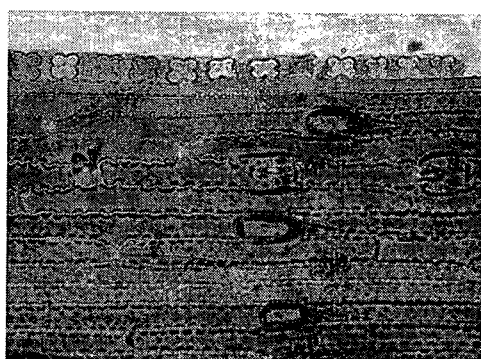


Fig. 4. 현생 벼 표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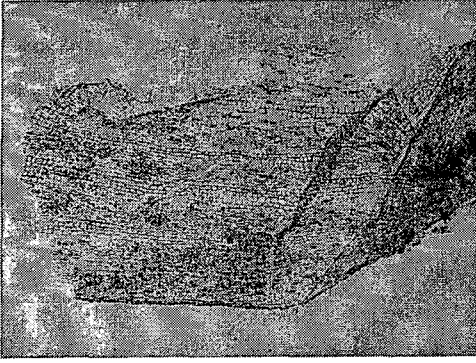


Fig. 5. 내홍동 껍신 표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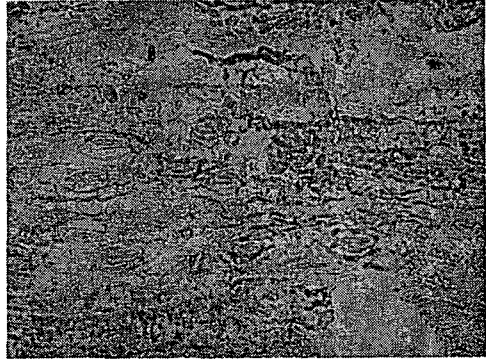


Fig. 6. 내홍동 껍신 표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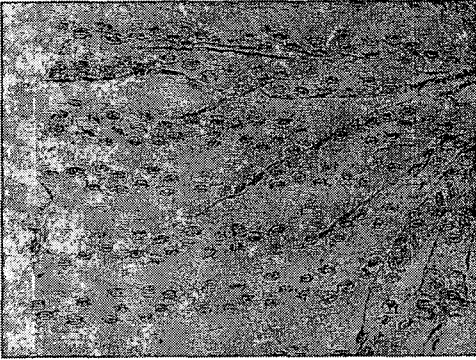


Fig. 7. 갈매리 껍신 씨줄의 표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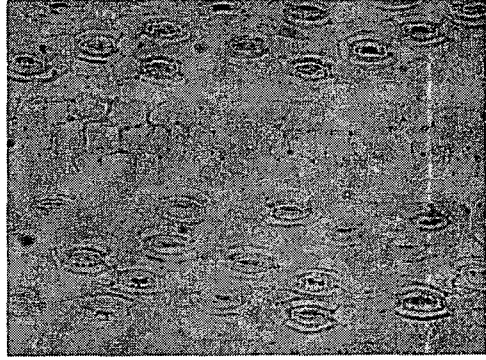


Fig. 8. 갈매리 껍신 씨줄의 표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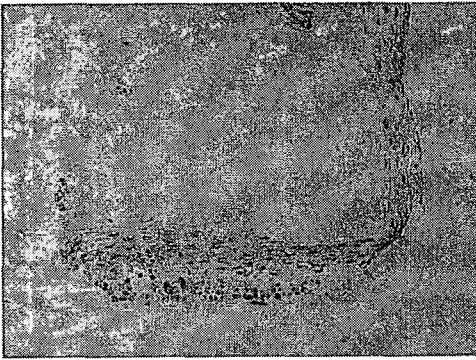


Fig. 9. 왕궁리 껍신바닥 표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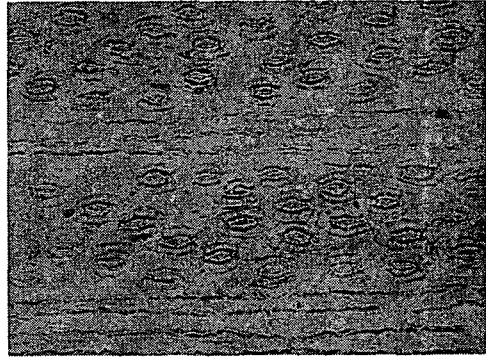


Fig. 10. 왕궁리 껍신바닥 표피×100